

실속 재테크

예비·신혼부부 돈 모으기 전략

뚜렷한 저축 목표 정해 소비유혹 떨쳐라

대출상환이 1순위... 남은 돈으로 저축은 안돼 전문가 도움 받아 성공적 재무설계·자산관리

KJB광주은행이 최근 결혼철을 맞아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재테크 요령을 소개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수입관리, 계획적 지출관리 등을 위한 장단기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광주은행 PB센터가 제시하는 재테크 전략이다.
▲재무목표 설정=인생에서 큰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따른 재무목표를 정해야 한다. 과거 재테크는 돈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할 지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필요한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자금을 모아야 한다. 종자돈 마련부터 주택구입 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그리고 부부를 위한 노후자금까지 목적에 맞

게 자금을 모아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재테크는 소비유혹에도 잘 견딜 수 있고, 재무목표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생활비 관리는 부부 공동통장으로=두 사람의 수입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는 각각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신혼 초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눈치 보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대화를 통해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적 지출관리=배우자의 소비습관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 생활비 등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급여는 모두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 아이 출산전이 가장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신혼집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라면,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부부 공동관리 통장 및 급여통장의 경우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가급적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대 은행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는 물론이고 외화 환전 시 환율 우대 등 주거대 고객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 가입한 보험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장보험 등 꼭 필요한 보험과 중복 가입된 경우를 구분하여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하

지만 과다한 보험료 지출은 자책 테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의 5~8% 내에서 지출하고 만기 시 환급에 얽매이지 말고 보장수준을 다른 상품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자=신혼부부의 재테크 요령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융전문가와 상담이다. 보통사람들은 계산하기 어려운 자녀교육비, 노후준비자금에 필요한 자금과 준비사항을 체크해서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의 개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수 많은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재무설계도 중간점검과 수정하며 실천하는 반복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을 잘 실천하려면 일정기간마다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금육 광주은행 PB센터 재무상담역 /정리=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봄 구두도 비비드컬러가 대세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구두 매장에서 다양한 색상의 색깔을 뽐내는 유명 구두 인기 상품전이 열려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1분기 카드승인 105조 지난해보다 16% 증가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1분기 국내 카드승인 실적이 10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2%(14조7000억원)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 기간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하고 실적이 있는 신용카드 수도 늘어 실적이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적이 있는 신용카드 수는 지난해 말 8514만장으로 2009년 말(7637만장)보다 11.5% 늘었다.
지난달 카드승인 실적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늘었고 2월보다는 19.5% 증가했다.
이 실적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해외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실적, 승인취소 실적을 제외한 순수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으로 체크카드, 선불카드 실적은 포함된 것이다. /연합뉴스

보해 복분자주 '품질인증' 획득



'보해 복분자주'가 국내 과실주 최초 품질인증을 받았다. 보해양조는 20일 보해 복분자주가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우리 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게 술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보해복분자주는 이번 품질인증

심사에서 '품질인증 술 100% 국내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황금색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해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과실주 중 최초로 품질인증받은 보해 복분자주는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에 만찬주로 선정될 만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최상급의 국내산 복분자주를 발효시킨 후 정성껏 빚

어 복분자 본연의 맛과 향을 잘 살려 지난 2004년 출시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8년 연속 국내 과실주 수출의 8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이르면 다음달 출시분부터 인증마크가 표시된 복분자주 제품을 시판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비맥주 1분기 수출량 63% ↑

오비맥주는 20일 올해 1분기 맥주 수출량이 314만상자(500ml 20병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맥주 수요가 줄어드는 겨울철 비수기(1분기)에 수출물량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비맥주의 1분기 수출량은

2009년 132만상자에서 지난해 193만상자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분기 수출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비맥주는 이 기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일본에 198만상자를 수출했다. 특히 일본은 전체의 63%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오비맥주는 현재 몽골의 대표적 프리미엄 맥주 '카스'를 비롯해 홍콩 시장 점유율 1위인 'Blue Girl'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35개국에 30여종의 맥주 제품 수출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의 지난해 전체 수출량은 1245만상자로 2006년(440만상자)과 비교해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금리 대출' 캐피탈사 평균금리 30% 아래로

지난해 '고금리' 지적을 받았던 캐피탈사(할부금융사)들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0%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8%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직 캐피탈사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할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하면 4%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캐피탈사들이 신규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낮추고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하나캐피탈이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36%에서 29%로 7%포인트를 낮춘 것을 시작으로 상당수 캐피탈사가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했다. 롯데캐피탈이 지난해 11월 최고금리를 29.9%로 인정한 데 이어 올해 1월 현대캐피탈, 2월에는 우리파이낸셜과 NH캐피탈, 3월에는 한국씨티그룹캐피탈과 IBK캐피탈이 최고금리를 각각 29.9%로 낮췄다. /연합뉴스

2금융권 'PF 부실' 해법 찾는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국제기준 도입·보험사 리스크관리 차등화 추진

제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법이 저축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유연하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는 은행권에서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PF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는 데 맞춰 이러한 내용의 제2금융권 PF 대출채권 해법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P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12조2000억원)과 보험사(4조9000억원)가 우선 대상이다. 총 2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PF 잔액의 61.5%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처리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상장 저축은행 IFRS 적용 유예검토> =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1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사후정산(특정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 방식으로는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 PF 채권 '리스크관리 차

등화' 주문 =보험사의 PF 채권에 대해서는 '투트랙 처리'가 기본 방침이다.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만기를 연장거나 신규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의 PF 대출은 선별적으로 회수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PF 대출채권은 생보사 3조9000억원, 손보사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현재 건설사에 21조9000억원의 보증보증을 해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보증심사에 신중히 대처하도록 당부했다. 시공능력 300억원 건설사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액 가운데 올해 들어 사고가 난 금액은 지난 2월까지 89억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LG건설과 삼부토건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사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인터넷 뱅킹 (0.1%를 우대해 드립니다)

에덴스탁론 (주식매입자금 대출)

동양저축은행 TEL. 062-226-0180

임차(전세) 보증금대출

메디칼 대출